

고흥교육청, 원격수업 선제적 준비

원격수업운영 선도학교 TF팀 운영...방안 마련

1일 체크리스트·전남e학습터 등으로 관리

고흥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습결손이 예상되는 관내 학교의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눈길을 받고 있다.

고흥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교육전문직이 포함된 원격수업 운영 선도학교 TF팀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녹동고등학교는 온라인강의 시범운영 교과회의 회 조직과 자체수업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한 사례를 공유하여 관

심을 모았다.

고흥여자중학교에서는 학급답임을 중심으로 한 1일 체크리스트와 전남e학습터와 구글클래스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습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과제 점검이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참가자들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의 수준과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사들의 자체 콘텐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SW교육 교사동아리가 주축이 된 지원단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정빈 교육지원과장은 “김연병으로 인한 장기 휴업이라는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견디다면 교실 수업 변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익숙한 젊은 교사와 선배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선을 다해 예방해주길 바란다.”며 격려하였다.

동부권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 안산중, 코로나19 극복 위한 희망문구 보내기 캠페인

여수 안산중학교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지난 27일 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문구 보내기’ 캠페인을 학생들과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과 환자 치료에 빔낮 없이 희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활동이었다. 이번 캠페인에는 안산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의

홍보로 147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1학년 이○○은 “코로나 19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저희는 덕분에 집에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하지만 꼭 코로나19를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파이팅!”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2학년 허○○는 “꽃이 흐드

러지게 피어나는 이번 봄에는 대구 시민들의 미소도 피어나길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희망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3학년 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 착용하고, 항상 부득이한 외출 시 조심 또 조심하며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예방행동 수칙을 강조하였다. 이 캠페인의 희망문구는 동영상

으로 제작되어 대구광역시청, 경상북도청, 전남교육청 등에 게시하여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줄 것이다.

정미자 교장은 “장기간 휴업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활동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어린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에 해결에 동침하고 공감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감동이었다.”라고 전하였다. 여수=김도현 기자

화순오성초, 교사·학부모 빈틈 없는 학습·돌봄 관리

다양한 방안 마련 실행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순오성초등학교가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휴업 기간 중에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세 차례 개학이 연기된 휴업 기간 동안 학생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가 학급 SNS를 이용해 일일활동계획을 안내해주면, 협력교사로 위촉장을 받은 학부모가 가정에서 학생들을 관리해 준다. 또 긴급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독서, 국어, 수학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학생들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화순오성초 학생들은 ‘전남e학습터’에서 매일 아침 담임교사가

제시한 교과의 해당 강좌를 학습하고 그 내용을 학습장에 기록한다.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서 낯설기는 하지만 반복 학습이 가능한 장점과

별써 3주 째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 이제는 꽤 익숙해졌다. 개학 후 교실에서 반복하여 공부하게 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부모님이나 학급 SNS에 도움을 요청해 해결하기도 한다.

또한 담임교사가 직접 각 가정에 배부한 교과서를 활용해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측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읽기를 통해 독해 능력을 길러주는 목적으로 주로 읽기 활동이나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교과서를 선정해 배포했다. 매일 아침 담임교사는 배부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과 해당 교과서 쪽수를 학급 SNS에 안내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지리산을 가르치는 학교, 구례중

구례중학교는 지난 30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상(學校像) 정립을 위해, 지역사회와 산인 지리산(智異山), 그 이름을 교육적으로 새롭게 해석한다고 밝혔다. 교직원은 “오늘 지리산, 산 이름을 교육과 연관하여 ‘求智求異’로 새로이 해석하였으며, 이에 지리산이 박수를 치는 듯합니다.”라고 밝게 웃으며 소감을 밝혔다.

김형규 교감은 “지리산은 학교가 할 일을 정확히 밝히고, 교육이 나갈 길을 정확히 제시하는 산입니다. 우리 학교가 2020년 오늘 지리산을 새로이 해석하는 것은, 1946년 개교한 구례중학교가 역사적으로 지리산과 인연이 매우 깊기에 가능한 일지요.”라고 말했다.

배한재 교사(연구부장)는,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데에 있어, 우리 학교와 구례군 주민들은 큰 역할을 하였답니다. 50년대, 60년대 당시 우리학교에는 ‘연하반(煙霞班)’이라는 구례중학교 교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산악회가 있었지요. 연하반과 지역주민은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리산 보존 캠페인을 하고 수차례 상

경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1967년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됩니다. 이는, 지리산 연하봉의 유래이기도 합니다.”라며, “이제 새 지리산과 함께 ‘지혜와 창의성을 기르는 구지구이(求智求異) 교육활동’을 펼쳐겠다.”라고 설명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신안 지역민, 압해초에 수제 마스크 기증

아이들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재능 기부

신안 압해초등학교가 지난 30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회와 압해지역 주민들이 손수 한 팜 한 팜 만들어 준 면 마스크 250장을 기증받고 고마움을 전했다.

압해초 학부모회 임원과 희망 학부모, 지역주민들은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흘 간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1인 2마

스크’를 목표로 수제 면마스크 제작 재능 기부활동을 펼쳤다.

압해초 학부모회는 음 지역 시설에서 재봉질과 마스크 만들기의 기술을 배운 뒤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마스크를 제작, 기증했다.

압해초는 학부모의 뜻을 살리기 위해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으며, 만들어진 마스크는 개학일에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안=정승호 기자

전남교육청, 다문화 학생 대상 온라인교육

다국어판 홈페이지 개설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가 서툰 전남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교육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